

7 칼빈의 입장에서 본 바르트의 예정론¹⁾

유태주 교수 / 한일장신대학교, 조직신학

1. 서 론

20세기 신학의 위기 속에서 그 흐름을 주도하였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바르트(Karl Barth, 1886–1968)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이한 지금에도 바르트의 신학적 영향력은 크다고 본다. 토미즘과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르트는 종교개혁 신학을 추구하였고, 그것을 20세기에 적합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신학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였다.²⁾

이에 따라 바르트의 신학은 자유주의와 정통주의신학 방법론 모두에

1) 이 글은 필자의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요한 칼빈과 칼 바르트의 예정교리 비교”(1984)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 보완한 것입니다.

2) 바르트는 그의 책 *The Theology of John Calvin*의 서문에 말한 바와 같이 칼빈의 신학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의 ‘교회교의학’에서 칼빈의 신학을 재해석 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선택교리와 같은 교리를 형성하였다. Karl Barth, *The Theology of John Calvin*, trans. Geoffrey W. Bromiley(Grand Rapids, Michigan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22–1995), 9–10.

반대하는 신학을 추구하였다. 바르트의 신학연구는 중세 스콜라 신학과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거센 도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학의 구조면에 있어 그 둘 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어서, 그 둘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바르트는 신학의 방법론적 근거에서 스콜라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전제들을 부인한다. 신학의 서론에서 스콜라주의는 기독교 믿음을 위해서 이성적인 근거를 전제하고, 자유주의는 경험적인 근거를 전제한다고 바르트는 생각하였다. 둘 다 인간의 주관성에 근거하고, 둘 다 하나님의 타자성(otherness, 인간의 제한성)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제한성을 강조함.), 계시, 그리고 믿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바르트는 생각했다. 둘 다 인간의 불꽃을 통하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둘 다 인간의 가능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둘 다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³⁾

또한 바르트는 기독론 단일주의로의 신학을 모색하였다. 바르트 신학의 접근방법은 기독교 신학의 시초를 놓는 데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서론을 당연시했던 전통적인 신학에 대한 필요한 수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전전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바르트가 전통적인 신학에 반대해서 펴낸 반응도 똑같이 부적당하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에 대한 기독교회의 신조를 싸잡아 물리쳐 버렸다. 그와 동시에 바르트의 신학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특별계시라는 전통적인 위치로부터(바르트는 성경을 '종이 교황'이라고 불렀다.) 계시에 대한 우선적인 증거의 역할로 축소되었다. 그 이유는 계시 자체의 정의가 말해주는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 주는 개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분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렇게 함으로 바르트는 기독론 단일주의(Christomonism)에 이르게 된다.⁴⁾

3) Ibid., 57.

그러므로 바르트의 새로운 신학적 작업이 칼빈을 비롯한 사도적이며 정통적인 신학을 잘 보완 발전시킨 면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의도와는 달리 정통적인 신학을 왜곡시킨 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중 하나가 바르트의 선택론이라는 예정교리이다.

2. 바르트의 예정론

1)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예정론의 위치와 그 특징

바르트는 예정론(predestination)을 화해론(reconciliation)의 핵심적 내용으로 다룬다.⁵⁾ 화해론이 기독교 신앙고백의 중심내용이라면, 예정론은 기독교 신앙고백의 핵심내용이요, 교의학 전체의 중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⁶⁾ "예정론은 복음의 총화이다".⁷⁾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모든 인간을 선택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예정론의 내용은 바로 복음이다.⁸⁾ 이처럼 바르트 신학체계에 있어서 예정론, 즉 그의 선택교리는 그 중심을 이루고 모든 교리체계의 기반이 됨을 그는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바르트의 예정론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을 비롯한 성서적이며 전통적인 예정론을 거부하고, 바르트 자신의 신학적 해석에 따른 새로운 선택론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택론doctrine of election)은 세 가지 강조점을 두어

4) Ibid., 59.

5)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2(*The Doctrine of God*), Trans. G. W. Bromiley, T. F. Torrence etc. (Edinburgh : T. & T. Clark, 1967), 85-93(다음부터는 *Church Dogmatics*를 C. D.로 표기함).

6) C. D., II-2, 78.

7) "The doctrine of election is the sum of the Gospel", C. D., II-2, 3.

8) C. D., II-2, 9.

왔다고 바르트는 말한다. 첫째, 자비로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God's freedom)이다.⁹⁾ 둘째,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숨어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the mystery of God)이다.¹⁰⁾ 셋째,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결정의 비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God's righteousness)를 들고 있다.¹¹⁾

그러나 바르트는 이러한 전통적인 예정론의 강조점들이 복음선교적 차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오히려 피조물들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마치 피조물의 자기파멸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의 비밀’에 있어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예’(yes)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다.”¹²⁾ 그러므로 “이 세 강조점들은 항상 은혜롭게 선언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택교리를 복음선교의 관점에서 말하여야 한다.”¹³⁾

이와 같이 바르트는 성경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세워진 전통적인 ‘이중 예정교리’(double predestination)이지만, 복음선교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은혜만을 강조하는 새로운 선택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르트의 예정론은 이른바 긍정적인 선택론을 전개시키기 위하여 ‘극단적 기독론적인 예정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는 “예정론 전개에 있어서 어거스틴이나 루터, 그리고 칼빈 등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

9) C. D., II-2, 19.

10) C. D., II-2, 30.

11) C. D., II-2, 21.

12) C. D., II-2, 34.

13) C. D., II-2, 34.

요한 위치에 놓기는 하지만 기독론적인 사고는 충분하지 못하였다.”¹⁴⁾ 고 주장한다.

따라서 바르트는 기독론 중심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전개해 나아간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최초의 아담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구원 받도록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구원 받도록 선택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면제시켰다.

그러므로 선택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앙공동체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바르트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인간’이다.¹⁵⁾

이와 같은 선택에 대한 바르트의 견해는 그를 만인구원설(universalism)의 주창자로 간주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바르트는 악을 제한된 것으로 보았다. 악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따라서 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호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만이 그의 은혜에 근거하는 최후의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선택에 관한 바르트의 견해는 만인구원설을 사실상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14) C. D., II-2, 61-67.

15) Daniel J. Adams, *Lectures on Reformed Theology*(Seoul : Hyung Sang Books, 1990), 초 속 역, 「개혁신학개론」(서울 : 혼상사, 1990), 76.

16) Ibid., 77.

2) 선택의 주체와 객체인 예수 그리스도

바르트는 예정론의 근거와 핵심을 그리스도의 선택에서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고, 선택된 인간이다.”¹⁷⁾ 따라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의 선택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함께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의 선택 받은 인간이라는 개념과 함께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선택하는 하나님인 동시에 선택 받은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주체인 동시에 객체인 것이다.¹⁸⁾ 이 이중적인 명제 속에 바르트의 예정론 전체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1) 선택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일 뿐만 아니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선택된 인간이다. 그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인 이상 우리는 분명하게—모든 것을 넘어서서—선택의 적극적인 결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한다.”¹⁹⁾

위와 같은 해석은 바르트적인 삼위일체론 이해에서 유래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 중의 한 위격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주체로서 이 선택에 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다.²⁰⁾

그러므로 바르트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경우,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성자의 인격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신

17) C. D., II-2, 94.

18) C. D., II-2, 100-103.

19) C. D., II-2, 103.

20) C. D., II-2, 100.

적인 비밀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비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떠나서 일어난 것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릴 것이다.²¹⁾

바르트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으로서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인간을 구원에로 선택하셨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신성(Godhead)은 “단지 아버지의 신성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성”²²⁾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하나님의 다른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²³⁾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지, 어떤 사람들은 멀망 받을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²⁴⁾이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의지는 곧 하나님의 의지이며, 이 의지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함께 선택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택 안에서, 그리고 이 선택과 함께 선택하며, 그의 아들의 이 자유로운 순종의 행위 안에서, 그리고 이 행위와 함께 선택한다.”²⁵⁾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선택과 소명과 믿음에로의 부르심의 약속이 된다.”²⁶⁾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들의 예정의 계시와 거울’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 오히려 그는 그를 통하여

21) C. D., II-2, 104.

22) C. D., II-2, 115.

23) C. D., II-2, 115.

24) C. D., II-2, 115.

25) C. D., II-2, 106.

26) C. D., II-2, 106.

하나님의 의지인 그의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의 선택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바로 그가 우리를 선택한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²⁷⁾

(2) 선택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택하시는 하나님, 곧 선택의 주체인 동시에 그는 사람의 아들로서 선택된 인간, 곧 선택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된다.²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선택된 자들 가운데서 한 선택된 자가 아니라 근원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선택이다.²⁹⁾ 그리고 다른 선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엡 1:4).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그와 함께 그와의 사귐 가운데 있다든지 그를 통하여 있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안에, 그의 의지 안에, 그 자신의 선택 안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결단 안에 있음을 뜻한다. 바로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선택된 자들과 구별되면서, 이와 동시에 그들과 결합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인간인 동시에, 그 자신의 인성(人性) 가운데서 그들 모두를 선택하는 하나님 자신이다. 선택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의 선택 안에서, 그의 선택과 함께 선택되었다.”³⁰⁾

그러므로 일반인으로서 선택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선택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선택된 자로서 모든 다른 선택된 자들의 주요, 머리이며, 그들의 선택의 계시와 거울이며, 모든 하나님

27) C. D., II-2, 106.

28) C. D., II-2, 116.

29) C. D., II-2, 117.

30) C. D., II-2, 116-117.

의 선택의 기관과 도구이다.”³¹⁾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인간”이라는 명제 속에 함축된 의미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길과 사역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심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넘쳐흐르는 영광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우리에게 은혜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창조성, 그리고 그의 독생자성에 동참한다는 뜻이 있다.³²⁾

둘째, 인간 예수의 선택은 대리적인 순종과 고통에의 선택이다. 이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선택을 하신다. 그는 모든 불순종의 인간들이 당해야 할 고난을 단 한 사람의 순종하는 자가 당하도록 결정하신다. 그러므로 “선택된 인간 예수는 고난과 죽음에로 결정되었다.”³³⁾ 저주 받은 자들을 위하여 선택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악된 인간들을 대신하여 저주와 고난과 죽음을 당함으로 그들을 선택한다.³⁴⁾

셋째, 인간 예수가 모든 인간을 대리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도록 결정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된 인간을 책임지며, 그들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하나님의 자기희생’을 뜻한다.³⁵⁾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와 사탄의 저주를 인간은 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참여하게 되었다.³⁶⁾

그리고 모든 다른 인간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있다.³⁷⁾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도록 선택되었다. “예수

31) C. D., II-2, 117.

32) C. D., II-2, 120.

33) C. D., II-2, 122.

34) C. D., II-2, 124.

35) C. D., II-2, 125.

36) C. D., II-2, 126.

37) C. D., II-2, 126.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부활과 기도를 염두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것이 선택되었음을 뜻한다. 이것을 행하는 바로 그 인간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대답이다.”³⁸⁾

3)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

(1) 기독론 중심적인 하나님의 예정 인식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의 주체와 객체를 우리가 안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한다.³⁹⁾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작정은 알 수 없는 객체에 관계된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작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⁴⁰⁾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불명료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묘사된 전통적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바르트는 주장한다.⁴¹⁾

그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인데, 선택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선택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이다.⁴²⁾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예정의 주체의 규정과 객체의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다.⁴³⁾ 그러므로 예정론의 근거, 예정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⁴⁴⁾ 그러므로 예정론의 인식론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38) C. D., II-2, 127.

39) C. D., II-2, 146.

40) C. D., II-2, 149.

41) C. D., II-2, 156.

42) C. D., II-2, 146.

43) C. D., II-2, 147.

44) C. D., II-2, 151.

것이 바르트의 견해이다.

또한 바르트는 말하기를 예정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으며, 은폐되어 있지 않고 열려져 있다.”⁴⁵⁾고 한다. 나아가 예정은 ‘모든 만물의 시작’으로까지도 표현하면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선택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의 단일성 가운데 있는 양자, 사람의 아들에게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결속시키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힘 가운데 수행되었고, 봉인되었으며, 완전한 개방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완전한 성실하심 가운데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계약을 말한다.”⁴⁶⁾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의지 이외에 어떤 다른 하나님의 의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르트의 논리이다. 즉, “모든 만물의 시작인 이 작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것은 칼빈의 예정론이 말하는 절대섭리(decretum absolutum)가 아니다.”⁴⁷⁾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바르트의 극단적인 기독론 중심적인 하나님의 의지의 계시에 대한 논리는 성서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각 위격에 있어서 그 존재와 사역하심의 확실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즉,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를 성자께만 의도적으로 수렴시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 계시된 성경말씀의 계시를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오류를 바르트는 범하고 있는 것이다.

(2) 바르트의 이중예정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아들의

45) C. D., II-2, 157.

46) C. D., II-2, 157.

47) C. D., II-2, 157.

성육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가진다. 이것이 바르트에게는 이른바 ‘이중 예정’(double predestination)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성서적, 전통적인 예정론에 대한 바르트의 거부현상은 이중예정의 문제에서 완전히 노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르트의 이중예정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친구와 파트너로 택하셨으며, 그는 고난을 당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이 당해야 할 거부를 담당하셨다.⁴⁸⁾ 그러므로 예정이란 인간이 당해야 할 부정(no)을 하나님이 당하시고 자신을 저주 받을 자로 세우심으로써 인간을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한 하나님의 영원한 부정을 뜻한다.⁴⁹⁾ 즉,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앙은 인간이 베림받지 않음에 대한 신앙 혹은 그의 베림에 대한 비신앙(disbelief)을 뜻한다. 인간은 베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있어서 베림받기로 예정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었다.”⁵⁰⁾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의미를 피조물인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 죄 값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의미(사 53장, 롬 3:23-24; 5:18)로만 보지 않고, 이중예정의 객체, 즉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음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바르트의 이중예정은 하나님에 대한 예정은 부정적인 반면에 인간에 대한 예정은 긍정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그 자신과의 사귐을 예정하셨고, 창조자의 계약의 삶의 사귐 속에 있는 구원과 영광을 예정하셨다.⁵¹⁾ 그는 인간이 당해야 할 부정을 자신의 부정으로 삼으심으로 인간에게 긍정(yes)을 열어 주시기로 하셨다. 그는 인간의 뜻을 자기가

48) C. D., II-2, 163.

49) C. D., II-2, 166.

50) C. D., II-2, 167.

51) C. D., II-2, 170.

취하는 대신에 자기의 뜻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영생을 인간에게 넘치게 주기로 결정하셨다.”⁵²⁾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에게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바르트는 말한다.

이렇게 바르트의 이중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동일시된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되고, 다른 사람들은 베림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인간을 선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베림은 목적론적으로 선택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긍정적이며 유기에 있지 않다⁵³⁾고 바르트는 강변한다.

3. 칼빈의 입장에서 본 바르트의 예정론 분석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진정한 의미

칼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특정한 선택이며, 동시에 주님의 구속사역은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이요, 선택에서 거부된 자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은 아니라고 한다. 곧 이중예정을 명백히 인정한다.⁵⁴⁾ 칼빈의 이중예정은 성경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것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웁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요 17:9). 그러므로 전 세계인이 창조주께 속한 것이라 아니라 다만 은혜 없이는 멸망해야 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저주의 사망

52) C. D., II-2, 170.

53) C. D., II-2, 174.

5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7), III, xxi, 7. (이후로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을 *Inst.*로 표기함.)

에서 구해 내시고, 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의 선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6:37 말씀과 10:27~29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선택된 자를 지칭하셨다.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8:28~29 등에서 선택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롬 9:6) 명백하게 선택(election)과 유기(reprobation)를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이 예정론에서 강조하려는 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며, 선택된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서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러므로 선택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며,⁵⁵⁾ 또 한 선택 받은 자들이 누릴 견인의 은혜를 주장하려는 데 있다.⁵⁶⁾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이중예정 교리는 은혜의 선택론이며, 이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동시에 성경에 여러 차례 계시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유기된 자들을 제외한 특정한 소수의 선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경말씀을 자기 철학적 이데올로기로 굴절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가 최상의 진리요, 최선임을 알았던 칼빈은 이중예정 교리를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그리고 어거스틴이나 루터처럼 성경말씀을 따라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예정에 대하여 바르트는 전통적인 개념을 거부하고 이를 바극단적인 기독론 중심적으로 해석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이 시고, 예정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거부 속에서 사람을 선택하셨다. 거기에는 ‘예’(Ja)와 ‘아니오’(Nein)가 함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예’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에게는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이제 ‘아니오’(reprobation)는 더 이상 인간에게 관계가

55) *Inst.*, III. xxi, 1.

56) *Inst.*, III. xxi, 7.

없는 것으로 단정한다.⁵⁷⁾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부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다는 것이다.⁵⁸⁾ 신자와 불신자는 다만 선택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정도의 차이로 본다.⁵⁹⁾ 여기에서 바르트의 구원론이 이른바 만인구원론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⁶⁰⁾ 그러나 바르트는 선택된 불확정한 수가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함으로 만인구원론은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¹⁾ 바르트는 말하기를 교회는 만인구원론을 가르쳐서도 안 되지만, 사람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초월한다고 하는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⁶²⁾

그러나 바르트는 1949년 ‘개혁교회목사협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죽이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인구원설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⁶³⁾ 바르트는 여기에서 그의 선택론이 사실상 만인구원론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만인구원론의 오류를 낳게 하는 그의 선택교리 전반에도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그의 선택론이 바르트 신학의 중심이라는 데 있는 것이다.⁶⁴⁾ 따라서 그의 구원론 체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요청되는 것이다.

57) C. D., II-2, 174.

58) C. D., II-2, 167.

59) C. D., II-2, 449.

60) Harry Buis, *Historic Protestantism and Predestination*(Michigan,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58), 14.

61) Ibid.

62) Ibid.

63) Ibid., C. D., II-2, 100.

64) “The doctrine of election is the sum of the Gospel.” C. D., II-2, 3.

2)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은총과 바르트의 만인구원논리

바르트의 선택론은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 자신은 만인구원론을 거부하지만, 그의 신학의 중심인 선택론은 만인구원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거부를 자신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도 거부(유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르트가 어떻게 만인구원론의 결점을 제거할 수 있을지, 그것은 그의 선택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힘든 일이다.⁶⁵⁾

“바르트는 신인협동설(synergism)을 반대하는 칼빈주의를 넘어서 가지고 있으며, 은총의 주권을 강조하는 자리에는 사람의 결단이 어떠한 의미도 없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⁶⁶⁾ 바르트는 “우리는 저주를 제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근거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⁶⁷⁾ 그는 “복음이 ‘다만 기쁜 소식’(Only Good News)이 되기를 바라고 예정교리의 의문점들(선교열정 식히는)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불신자들의 파멸에서 야기되는 의문점을 제거하였으나, 우리의 신앙을 의미 없는 것으로 변형시켜 버렸다.”⁶⁸⁾ “바르트는 만인구원설을 거부한 반면, 그가 다른 어떠한 결론을 얻기도 거절한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그의 모든 이론체계를 위태롭게 한다.”⁶⁹⁾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그의 주장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만인구원론의 결과들, 그 논리적 결과를 받아들이기에는 그 근거가 마음에 내키지 않음에도 신학적인 호기심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⁷⁰⁾

65) Harry Buis, *Historic Protestantism and Predestination*, 104.

66) Harry Buis, *Historic Protestantism and Predestination*, 103.

67) Ibid., 103.

68) Ibid., 103.

69) Ibid., 104.

바르트의 만인구원설적인 선택교리는 이미 자신이 인정하였듯이 논리적으로 모순된, 즉 실패한 신학적 논리체계이다. 이러한 바르트의 모순된 신학체계의 원인은 바로 그의 잘못된 성경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바르트의 성경관은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 1813–1855)의 실존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성경이해로 인하여 성경에서 신앙과 이성을 분리함이 성경의 사실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약화시킨다.⁷¹⁾ 그리고 이와 같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가치판단의 성경이해는 성경의 신빙성을 약화시켜 바르트의 만인구원론적인 선택교리와 같은 허상을 만들어 내기에 이른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과 맞섰던 초기에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Der Romer Brief*)이야말로 신학사의 새로운 전기였다. 1916년에 시작하여 1918년에 완성한 「로마서 주석」은 교회역사에 큰 개혁을 촉구하였다. 그의 「로마서 주석」은 1919년 베른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로마서 주석」 첫 판은 1,000권을 인쇄하였다. 바르트는 이 첫 번째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 저술의도를 밝히고 있다.

바울은 자기 시대의 인물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와 사도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했다는 사실이다. 그 때와 지금, 거기와 여기 사이에 놓여 있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와 관찰에 별 지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⁷²⁾

70) Ibid., 104.

71) Francis A. Schaeffer, *The God Who is There*(Downers Grove, Illinois : Intervarsity Press, 1968), 9–21.

72) “Paul, as a child of his age, addressed his contemporaries. It is, however, far more important that, as Prophet and Apostle of the Kingdom of God, he veritably speaks to all men of every age. The differences between then and now, there and here, no doubt require careful investigation and consideration”. Karl Barth, *The Epistle to the Romans*, trans. Edwyn C. Hoskyns from the sixth edition(London :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을 특징 짓는 언어학적-역사적 연구에의 집중을 비난하였다. 그의 관심은 역사를 깨뚫고, 그리고 역사 저편에 있는 성경의 정신, 곧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보려는 데 있었다.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초판은 인본주의적 및 문화적 자유주의 신학의 기독교와 단절하고 있다. 그의 관심은 인간의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데 있다.

물론 초판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안에 돌입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 바르트는 아직도 플라톤 및 관념론적 사고 형식들의 영향하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속성에 대하여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쓴잔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공명을 일으켰다. 이러한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 20세기 신학사의 큰 변혁을 가져왔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칼 아담스는 이 작품의 영향력에 직면하여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르트는 초판 「로마서 주석」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2판 「로마서 주석」(1922)을 쓰기에 이르렀다. 제2판은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게서 배운 역설을 도입하여 로마서를 해석하였음을 바르트는 인정하고 있다.

만약 나에게 어떤 체계가 있다면 그것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시간과 영원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 국한한다. 본인 생각에는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러한 하나님과 그러한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러한 인간과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의 주제요, 철학의 본질이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 인간의 인식론적 위기라고 한다. 즉, 제1원인이 그것이다. 그

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과 인간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본다.⁷³⁾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에 도입한 변증법적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이 변증법에는 살아 있는 진리, 곧 하나님에 관한 진정한 결정적 언표 내용은 하나님(진정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진정으로 인간!)는 사실에 대한 확고부동한 통찰이 들어 있다.” 둘째, 변증법적 방법은 모든 신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과 반응, 긍정과 부정, 그리고 질문과 대답이 있다. 신학에 있어서 진정한 이해가 일어나려면 이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답은 또다시 질문이 된다. 질문과 대답, 말씀과 응답, 이는 항상 두 인격, 곧 하나님과 인간을 말려들게 한다. 진정으로 바르트에게 있어서 모든 변증법적 사고의 원천은 신-인(God-man)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름은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함으로—우리가 변증법적 신학자들이라면—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날말로 볼 수 없다. 바로 이 중심(God-man=Jesus Christ)에서 모든 신학적 사고가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⁷⁴⁾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적 사고의 결과, 바르트는 성경 자체가 하나

73) “My reply is that, if I have a system, it is limited to a recognition of what Kierkegaard called the ‘infinite qualitative distinction’ between time and eternity, and to my regarding this as possessing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significance : God is in heaven, and thou art on earth.” The relation between such a God and such a man, and the relation between such a man and such a God, is for me the theme of the Bible and the essence of philosophy. The philosophers name this KRISIS of human perception—the Prime Cause : the Bible beholds at the same cross-roads—the figure of Jesus Christ.” Karl Barth, *The Epistle to the Romans*, trans. Edwyn C. Hoskins(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8-1972), 10.

74) David M. Muller, 이형기 역, 「칼바르트의 신학사상」(서울 : 양서각, 1986). 24-25.

님의 계시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와 역사에 읽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바르트의 계시관은 본질상 역설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하나님 안에는 긍정(yes)과 부정(no)이 모두 긍정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⁷⁵⁾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요, 동시에 유기된 자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화된 자요, 동시에 죄인이다. 하나님은 절대타자이심으로 역사 속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도 성경의 말씀과 동일시 될 수 없다.⁷⁶⁾ 따라서 바르트는 예수의 부활도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역사(Historie)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초역사(Geschichte)의 실존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⁷⁷⁾ 이러한 초역사성의 강조는 바르트로 하여금 노스티주의의 문제점이었던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예수의 역사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⁷⁸⁾ 그리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없다. 바르트의 성경 이해는 성경의 신빙성을 약화시켜 만인구원론적인 선택교리와 같이 성경의 진리에 배치되는 이론을 말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바르트는 성경의 완전성을 인간의 철학적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간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바르트의 선택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맹목적인 은총의 교리로 변하게 된 중요 원인이라고 본다.

4. 결 론

바르트의 신학은 양면성을 가진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그

75) Karl Barth and Eduard Thurneysen, *Komm Schopfer Geist!*(Munich : Chr. Kaiser Verlag, 1924), 23. D. L. Muller, *Ibid.*, 27. 재인용.

76) 김의환, 「현대신학개설」(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44-45.

77) *Ibid.*, 45.

78) *Ibid.*, 45.

것이다. 바르트 신학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보다도 자유주의 신학을 공격하여 일단 무너뜨린 점이다. 1932년에 시작된 「교회교의학」이 13권 이상 9,000페이지에 이르도록 임종 직전까지 쓰여진 사실은 칼빈의 신학적 노력과 공헌에 비길 만하다. 이 신학적 노력은 자유주의 신학과 투쟁하는 데 집중되었다. 인간의 신격화 내지 그리스도의 단순 인간화를 추구하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엽의 낙관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바르트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 인간의 타락과 한계를 강조함으로 개혁자들의 신학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⁷⁹⁾

그러나 바르트 신학의 부정적인 면은 그의 긍정적인 면을 가리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본다. 그 부정적인 문제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바르트의 이론바 극단적인 기독론 중심적인 선택론이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아들의 성육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르트에게 이론바 ‘이중예정’으로 간주된다. 바르트의 이중예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친구와 파트너로 택하셨으며, 그는 고난을 당하여 죽음으로 인간이 당해야 할 거부를 담당하셨다.⁸⁰⁾ 따라서 바르트의 이중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정과 긍정이 수렴됨으로 예정의 객체를 인간 일반에서 그리스도로 혼동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유기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⁸¹⁾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부되었기 때문이다.⁸²⁾ 그의 이러한 기독론 단일주의는 만인구원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트로부터 배우되, 그의 신학보다 전진한 길을 가야 한다.⁸³⁾

79) 김의환, 「현대신학개설」(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47-48.

80) C. D., II-2., 166.

81) C. D., II-2., 174.

82) C. D., II-2., 167.

83) Gordon J. Spykman, *Reformation Theology*(Grand Rapids, Michigan :

칼빈이 서 있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바르트는 선택과 유기의 대상을 인간 일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명백히 혼동하고 있다. 이중예정 대상의 혼란으로 바르트는 만인구원설적인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고 있다. 바르트 자신도 거부하는 신학적 논리체계의 모순은 그의 인위적인 성서관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다.

Eerdmans Publishing Co., 1992), 류호준, 심재승 공역, 「개혁주의 신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60.

8 Calvin's Doctrine on the Eternal Life

박해경 교수 / ACTS, 조직신학

1. Introduction

David E. Holwerda says that Calvin has never been famous for his eschatology.¹⁾ He rightly pointed out the fact that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ians have frequently emphasized Calvin's revolutionary understanding of history.²⁾ In other words, according to Holwerda, modern interpreters of history have strong tendency to look only an intra-historical dimension without respect to the significance of the doctrine of the future life or the last things. The same applies to contemporary

-
- 1) David E. Holwerda, "Eschatology and History: A Look at Calvin's Eschatological Vision," in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ed. Donald K. McKim(Grand Rapids : Baker, 1984), 311.
 - 2) Ibid.